

## 우드로 윌슨 센터·국제전략문제연구소 초청 간담회 연설

존경하는 샘 넌 이사장과 존 햄리 소장,

데이비드 메츠너 부이사장, 그리고 귀빈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저명하신 국제문제 전문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넌 이사장님과 햄리 소장님, 그리고 메츠너 부이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만찬에 앞서 최근의 한반도 상황과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간략히 몇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역 가운데 하나입니다. 세계 경제의 5분의 1을 담당하고 있고,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경제 규모가 전 세계의 3분의 1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무한한 기회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 있는 한반도에는 아직도 동·서 냉전의 잔재가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이제 한국은 동북아시아가 '평화의 공동체', '번영의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능동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열어 가려는 것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번째 과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평화번영정책' 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의 공존과 공영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대북 포용정책' 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남북한간에 대화와 인적·물적 교류가 상당히 활발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화해협력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갈 것입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최대한 투명한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과의 공조도 긴밀히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평화번영정책' 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 를 열어 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달에는 베이징에서 북한의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첫단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에 앞서 저와 부시 대통령은 몇 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서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지금도 양국 정부는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화가 시작된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모두가 진지하게 대화에 임해 나간다면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적 해결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고립을 지속할 것이냐, 개방으로 나갈 것이냐의 갈림길입니다. 현재의 북한 지도부로서는 쉽지 않은 선택일 것입니다. 저는 이 기회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과 공생의 길로 나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한·미 양국이 더욱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하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입니다. 한국 역시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미국과 함께 피 흘려 싸워 온 맹방입니다. 한국 국민들은 반세기 동안 다져온 한·미 우호와 동맹관계를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뿌리내리고, 나아가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미국의 건설적인 역할과 협력이 긴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경제와 교류 면에서도 이미 불가분의 동반자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양국간의 교역은 560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70만명의 한국 국민과 50만명의 미국 국민들이 양국을 방문했습니다. 올해로 이민 100주년을 맞이한 200만 한인들은 미국 사회의 곳곳에서 '아메리칸 드림'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결정했던 것도 이러한 한·미간의 전통적인 우호와 동맹관계를 깊이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보다 성숙하고 완전한 동맹관계로 발전되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의 이번 방문을 계기로 우리의 동맹관계가 상호존중의 바탕 위에서 한층 강화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고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